

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6. 12. 15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'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' 구성·운영

- 지난주 금요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의 큰 변화가 발생한 이후
 - 금융당국을 포함한 금융권은 금융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전 '금융위·금감원 합동 24시간 비상대응체계'를 각 금융협회와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까지 포함한 "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"로 대폭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.
- "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" 구축 후 금주초부터 각 금융업권별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고
 - * 12.13(화) 은행업권(사무처장)·보험업권(상임위원)·금투업권(증권위원), 12.15(목) 제2금융권(사무처장)에 대한 리스크 점검 실시
- 금융상황점검반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로부터 매일 금융상황을 보고 받아 점검하고 있습니다.
- 금융업권별 리스크 요인 등 최근의 금융상황과 각 기관의 대응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"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"에 따라 오늘 첫 번째 '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'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2 금융상황 점검 결과

- 어제까지 금융상황을 점검한 결과, 특이사항은 없었으나
 - 오늘 새벽,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
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오늘 새벽, 미국 FOMC는
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년여만에 25bp 올렸습니다.
 - 그러나, 이번 美 연준의 점도표에 나타난
'17년 기준금리 인상속도(3회 인상)가 시장의 전망(2회 인상) 보다
빨라질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국내외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나,
 -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속에
국내 국채금리와 환율이 상승하는 등
금리와 환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특히, 지난 11월 미국 대선 후, 미국 국채금리와 동조화되며
상승하였던 국내 국채금리가
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속에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
- '17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
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
 -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
금융당국을 비롯한 **전 금융권**은
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
대응해야 할 것입니다.

3 대응방안

1. 금융시장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

- ① 우선, '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'를 중심으로
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
 - 필요할 경우에는,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
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습니다.
- ② 전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
국내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
양적·질적 측면에서 제고하겠습니다.
 -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외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,
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여
실물부문에 대한 외화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- ③ 외신, 주요 IB, 국제신용평가사 등과
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여
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에 대한
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 - 해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회사들이
우리 금융시장에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나
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소하여
우리시장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2. 시장안정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

□ 금융당국은

국내 시장금리가 **추가적으로 상승**할 가능성에 대비하여
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면서
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
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① (금리상승 영향 점검) 우선,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.

○ 최근 마무리한

금리상승에 따른 **스트레스테스트** 결과를 토대로
금융업권별·차주별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

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상황변화에 맞는
맞춤형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하겠습니다.

② (시장불안에 대응) ‘채권시장안정펀드’와 ‘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’ 등을 통해 시장불안에 과감히 대응하겠습니다.

○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

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

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즉시 가동하겠습니다.

○ 이와 함께

미매각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
산업은행의 5천억원 규모의 ‘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’을
내년 2월로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.

③ (민생안정 지원) 또한, 민생안정을 위해

중소기업,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
확장적 기조로 전환하고, **가용역량을 총동원**하겠습니다.

○ 산은과 기은의 대출과 투자, 신·기보의 보증, 서민정책자금,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등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**대폭 확대**하고

○ 민생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서민 등의 금융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채무재조정 강화, 연체부담 완화 등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④ (재정·통화당국과의 협력) 아울러, 재정·금융·통화당국의 시장안정조치들이 일관된 정책방향하에서 균형있고 유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

금융당국과 기재부, 한국은행간에
정책조율을 강화하겠습니다.

4 당부 및 맺음 말씀

- ‘성화요원(星火燎原)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
‘작은 불씨가 퍼지면 넓은 들을 태운다’라는 말입니다.
- 아무리 작은 리스크라도
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..
-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,
경제 전반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안주해서는 안되며,

아무리 작은 위험요인도 나비효과가 발생하여
더 큰 리스크로 확대·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
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.
- 앞으로 ‘금융상황점검반’에서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
각 분야별 금융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을 총괄하고,
리스크 요인을 종합 점검해 주시고
- 금융시장팀, 금융산업팀, 기업금융팀, 서민금융팀에서는
해당 분야의 금융상황을 점검·분석하고,
리스크 요인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
다음번 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